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9년 12월

선교편지 제 126호



복된 성탄을 시므온과 만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희망찬 새해에도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박인호, 이연지 드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 34:3)**



지난 10월말 이곳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강력한 지진 이후, 아직도 여진이 간헐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디고스 예일 교회가 위치한 도시 전체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민들이 생활하는 나무로 된 단층 구조물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벽돌과 시멘트로 건축된 건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관공서, 학교, 병원 등과 같은 공공 건물들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임시 장소에서 관련 일들을 부분적으로 하거나, 아직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와 일자리를 잃고, 더불어 모든 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이전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도 벽돌과 시멘트로 건축된 2층 구조물인 까닭에 지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시 내의 다른 벽돌 건축물처럼 힘없이 주저 앉지는 않았지만, 교회 전면과 목회자 사택에 심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또한 교회 스피커와 같은 기물들이 파손되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추가 위험이 예상되어서, 일단 사택에 머물고 있던 현지 목회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교회 옆 공터에서 드리다가, 주변에 벽돌 구조물이 없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의 안전 진단 점검을 받기 위해서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하였는데, 도시 전체가 마비된 상태에서 관련 전문가의 일손 부족으로 거의 2주 동안 교회를 비워 놓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교회 밖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진의 여파로 모두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중에 교회가 아닌 야외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 모두들 상기된 표정입니다. 평소 주일과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 전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 받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 중에도 안전하게 지켜 주신 하나님께 한결 같이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야 깨달았다며, 교회 건물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유익과 위로를 나누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예배당 밖에서 천막을 치고 불편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큰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교회 건물의 안전 검사를 받았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교회 벽의 균열이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 수리를 권유 받아서, 일주일만에 모든 수리를 잘 마쳤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모든 교인들이 토요일에 모여서 교회 대청소를 하고, 주변 환경도 말끔하게 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일이 되어 그전처럼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연약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상한 심령을 부르시고, 치료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디고스 예일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맡겨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막 13:8)**



온 교우가 추수 감사절 예배를 감사와 감격 가운데 드렸습니다. 이맘 때면 이곳의 주요 농산물 중의 하나인 벼 농사의 추수를 마치기 때문에 '추수' 감사절이란 단어가 더 실감이 납니다. 지진의 여파로 예년보다 추수 감사절 예배를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았으나, 그 어느때 보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한 시간 전에 모여서 감사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함께 찬양을 한 이후에 어린이들과 중, 고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특별 순서를 발표하고, 5명 정도가 간증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상치 못한 자원자들이 추가로 간증하기를 원하여 눈물과 웃음으로 한층 더 감사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 어린 딸이 Denggi 열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완쾌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를 졸업 했을 뿐만 아니라, 꿈에 그리던 학교 교사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진 중에 가족과 일터를 지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 어머니와 동생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남편이, 주일에 늦지 않게 교회에 데려다 줄 정도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감사합니다.
-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지만,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도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 나이 34살에 대학에 갈 수 있는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이슬람교에 심취했던 남편이 심방을 받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여 감사합니다.
- 비록 한 쪽 팔을 사용할 수 없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다리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 동생이 지적장애 자이지만, 교회 가는 것을 기다리고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이 척박한 선교지에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3:17-18)**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